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4.28.(월) 11:00 < 4. 29.(화) 조간 > 배포 2025. 4. 28.(월)

외국인투자 확대와 유턴기업 지원 위해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 미국 고율 관세 정책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투자 유치 모멘텀 지속 및 유턴확대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28(월) 무역보험공사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6개 지방자치단체 및 6개 경제자유구역청, KOTRA, 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무역 갈등 등 급격한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확대 전략과 국내복귀(유턴)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345.7억 달러(신고 기준)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올해 1분기에는 64.1억 달러를 유치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견조한 외국인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성과는 각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정주여건 개선, 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의 산업기반 강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2025 경제정책방향'과 '외국인투자촉진 시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지원과 투자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상호관세 영향 분석,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변화된 통상환경에 적합한 투자 촉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미국의 고율의 관세 적용 발표, 글로벌 리쇼어링 흐름 등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며, 지자체에는 유턴기업에 적합한 부지·인프라·고용환경 마련과 기업 맞춤형 지원책 발굴을 당부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급격한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외국인투자 확대와 유턴기업 유치는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유지의 핵심"이라며,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 및 유턴기업 유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실 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상희 (044-203-4070)
		담당자	서기관	김범수 (044-203-4071)
		담당자	주무관	장재혁 (044-203-4076)
	해외투자과	책임자	과 장	김동진 (044-203-4090)
		담당자	사무관	허수지 (044-203-406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제2차 외국인투자유치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중앙-지방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논의

* 1차 외국인투자유치 중앙-지방간 정책협의회 ('24.12.26,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 (일시) 4.28(월) 15:00~16:30

○ (장소)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통상교섭본부장(주재), 16개 광역시도, 경제자유구역청, 산업단지공단, KOTRA IK 등

○ (주요 논의 내용)

- '25년 주요 외투시책, 1Q FDI 동향 및 유치활동 계획
- 국내복귀(유턴)기업 지원
- 지역별 외투유치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등

□ 진행 일정 (안)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5:00~15:05 (5')	• **모두 발언**	**통상본부장**
15:05~15:12 (7')	• **산업부 「'25년 외투 중점 추진사항」**	**투자정책과**
15:12~15:15 (3')	• **산업부 「국내복귀(유턴)기업 지원」**	**해외투자과**
15:15~16:25 (70')	• **시도별 「외투 현황 및 '25년 추진방향」**	각 시도 경자청 등
16:25~16:30 (5')	• **마무리 발언**	**통상본부장**

※ 모두발언까지 언론 공개